In Q3 we saw growth in subscribers from wireless and broadband internet based on stronger competitiveness in telecom business. And driven by structural cost saving efforts, we enhanced overall efficiency thereby achieving quite steady quarterly results. For the Wireless Business, we introduced ‘Business LTE’ that is optimal for a company’s business environment, as well as “Y24” which offers value-added data service to subscribers below 24 years of age. With optimized services that befit the mobile use patterns of the data-generation, and so were able to continue with net addition trends thanks to the leadership wielded in marketing.

For the fixed line business, by employing core competitiveness underpinned by differentiated GiGA Infrastructure, we are solidifying market leadership in broadband and the IPTV market. In broadband, GiGA internet net addition recorded 300 thousand in the quarter, surpassing 1.3 million mark. We are also seeing continuous growth in high quality subscribers for the IPTV as well. In particular, GiGA internet is not only contributing to overall Internet subscriber net addition trend, but also making positive impact on facilitating fixed and wireless bundling

자사는 통신사업 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발휘하여 3분기 무선 인터넷,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비용 감소를 추진하여 자사 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강화시켰고, 분기별로 안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선 인터넷 사업에서는 자사 사업 환경에 가장 어울리는 “LTE 사업”, 그리고 인터넷 이용 기간 24년 이하의 고객에게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Y24”이 소개되었습니다. 데이터 세대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 패턴에 가장 걸맞는 서비스와 함께 자사가 마케팅 사업에서 발휘한 리더십은 망 추가 트렌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선통신 사업에서는 차별화된 GiGA 사업기반이 중축이 된 핵심 경쟁력을 통해 브로드밴드 및 IPTV 시장내에서 리더십을 강화하였습니다. 브로드밴드 사업에서 분기별로 300,000개의 GiGA 인터넷 망을 추가하며 1,300,000 이었던 기록을 돌파하였습니다. IPTV 사업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GiGA 인터넷은 인터넷 사용자의 망 추가 트렌드 지속에 기여하며 유/무선 통신이 집속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